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부터 얻어진

동탑산업훈장



강순행 사장

(주)광양기업

(주)광양기업은 1984년 설립하여 POSCO 협력작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및 준설작업, 자가1급 자동차 정비업, 상하수도 관로조사(C.C.T.V) 작업 등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어 회전체에 끼거나 추락, 가스 중독, 매몰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공정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주)광양기업은 '98년 4월 18일에 무재해 5배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제33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이 인정되어 강순행 사장이 최고의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는 (주)광양기업의 모든 직원의 철저한 안전관리 동참과 강순행 사장의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이념이 통합경영체제(I.M.S) 정착, 수행자 중심의 자율안전 System 확립 등 안전확보가 최우선임을 경영원칙으로 내세우고 적극 지원한 결과라 하겠다.

강순행 사장은 순천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58년부터 74년까지 광양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교육자로서 길을 걸었었다. 이는 지금 인간존중의

이념을 중시하는 강순행 사장이 있게 한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듦다.

강순행 사장은 산업재해에 대해 『재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회사, 나아가 국가에까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안전은 인간존중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Top-Down방식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 상태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는 견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소개할 (주)광양기업의 안전관리제도는 강순행 사장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가 엿볼 수 있다..

■ ■ ■ 바이오리듬 관리

본 제도는 회사에 차량운전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운전자의 신체·지성·감성 리듬 중 2개 이상이 겹친 직원에 대해서는 작업전 Condition Check, 안전교육, 면담후 Bio 표찰을 차량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자신의 안전을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다.

■■■ 안전수칙 별점 관리 및 EVER GREEN CARD 제도

직원의 안전한 작업분위기 조성 및 자율안전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입 시행한 제도로 보호구 미착용, 작업표준미준수 등 항목별 별점을 부여하고, 동료 직원 상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지적하는 동료안전지켜주기 활동(E.G.CARD)과 Neer Miss 사례보고, 개선조치 및 사례교육을 통한 동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 위험 작업 허가제

5대 재해취약작업(구동기기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고열, 유독물 취급작업, 산소결핍 및 가스중독 위험작업)의 안전장구 및 보호구 등의 준비와 대상 작업의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작업 3일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조치한 뒤 안전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작업을 하는 제도이다.

■■■ 직원 건강관리 PROGRAM 도입

기업 경영활동에서 생산, 품질,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건강관리 Program을 개발하여 채용시 신체검사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된 항목외에 작업환경을 고려한 검진항목을 추가시켰으며, 개인별 이력관리를 전산화 System으로 구축하여 전직원을 질환별 4등급으로 주기적 관찰 및 교육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에 (주)광양기업은 창사이후 현재까지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되지 않은 쾌적한 21세기 사업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99년 3월부터 작업현장 안전순찰 및 점검시 STOP기법을 적용시켜 문제해결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 있고, 신규 도입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등 다양하고도 작업 공정 및 환경 여건에 맞는 적절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침으로서 지난 99년 8월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초일류기업 평가를 받아 노동부로 부터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끝으로, 제33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최고의상을 수상한 (주)광양기업 강순행 사장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신뢰와 존경,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을 다하여 한가족 운영 공동체라는 이념으로 노사모두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분규없는 사업장, 무재해사업장을 이루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99년 노사협력우량기업, 안전보건초일류기업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POSCO의 제일 협력회사가 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었다.